박상우 장관, "국민안전 최우선으로 적극적·선제적 제설조치에 총력"
- 28일 출근길 고속도로 제설작업 점검… 출근길 사고 예방 선제적 조치 강조

□ **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**은 수도권 지역에 이틀째 폭설이 내린 가운데, 11월 28일 출근 시간대에 **안양-성남 민자고속도로 현장을 방문**해 **출근길 제설작업 상황을 점검**했다.

○ 박 장관은 현장에서 **도로관리청의 제설대책 상황을 점검**하고, **철저한 사전 제설작업**과 **도로 살얼음 예방**을 강조하며 관련 **대책을 지시**했다.

□ 박 장관은 "**국민 안전을 최우선**으로, 가용한 **모든 자원을 총동원**해 **적극**적이고 **선제적인 제설대책**에 **총력 대응**할 것"을 **강조**하며, "주요 구간에 제설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배치해 **출퇴근길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실시**할 것"을 주문했다.

○ 또한, "교통량이 몰리는 **출근길 결빙 사고**는 국민들의 큰 불편뿐 아니라 **대형 사고**로 이어질 수 있다"며 **선제적 예방 조치를 더욱 철저**히 할 것을 강조했다.

□ 박 장관은 과거 상주-영천 고속도로 및 구리-포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살얼음 **다중 추돌사고***를 언급하며, "**고속도로의 살얼음**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**위험성이 큰 만큼 철저히 대비**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* '23년 구리-포천(47중 추돌, 37명 사상), '19년 상주-영천(29중 추돌, 20명 사상)

○ 이를 위해 **야간 도로순찰**과 **취약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활용** 등 **선제적인 조치**를 시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.

□ 마지막으로, 박 장관은 이른 새벽부터 제설작업에 임하는 **현장 작업자**들을 직접 만나 **격려**하며, 작업자의 **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**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.

2024. 11. 28.
국토교통부 대변인

참고	도로분야 제설대책 추진 현황

□ 제설대책 개요

○ (대상도로) 고속도로 5,225km, 일반국도 12,080km 등 **총 17,305km**

* '24.12 연내 개통예정 도로(253.4km) 포함

○ (제설자원) **제설제 51.7만톤, 장비 8,034대, 인력 5,362명 등**

* 지난해 대비 제설자원을 10~15% 추가 확보하여 폭설 등에 대비 완료

○ (기상전망) 기온은 **평년과 비슷**(12~1월, 최저 -1.5℃), 2월은 평년보다 따뜻, **강수량**(최대 월45mm)은 **평년보다 다소 적음**(기상청 3개월예보, 11.22기준)

□ 중점 준비사항 ※ 금년 추가 시행사항은 밑줄로 표시

○ (국지성 폭설 대비) 다설지역(강원, 전북 등) 제설제를 **5년 평균 사용량의 최대 150% 확충**

- 응달지 및 급경사지 등 **취약구간**(고속·일반국도 647곳) **자동염수분사시설 등 안전시설 확충**, 제설 **장비 및 인력 사전배치 등** 시행

○ (살얼음 관리) 살얼음 대비 **야간 도로순찰 강화**, 고속도로변 **기상 IoT 관측망*을 활용**하여 **네비게이션 살얼음 위험정보 제공**

* 경부선 등 7개 노선, 259개소 기상관측망 구축·운영 ⇒ T-Map, 카카오네비 등 위험정보 표출

○ (안전운전 홍보) 운전자의 눈길 과속 예방 등을 위해, **제설대책 기간 2주전부터** 관계기관 합동 "**겨울철 안전운전**" 홍보

* TV·라디오 방송 / 휴게소 등 현장 현수막, 도로 VMS / 유튜버 협업 홍보 등

□ 27~28일 폭설대응 장비·인력 투입현황

○ (장비) 27일 1,400대 (고속도로 : 731대, 일반국도 : 669대)
28일 1,310대 (고속도로 : 662대, 일반국도 : 648대)

* 다목적 제설차, 덤프트럭, 제설제 살포기 등

○ (인력) 27일 2,223명 (고속도로 : 1,119명, 일반국도 : 1,104명)
28일 1,906명 (고속도로 : 1,017명, 일반국도 : 889명)